

“



로맨티스트
(주교재)
강좌소개



”



“지문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최적화된 일관된 풀이”

! 판단방식

⑤[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A] 주변 하늘 삼건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分)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B] 주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④(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선지의 주관과 일치

사실의 주변부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가)의 주변부에 아름다운이란 워딩이 그대로 적혀있다.

교재는 단순히 지문의 근거가 이 문장이라 정답이 이거야~라는 식의 틀린 그림찾기를 지양합니다.

평가원의 풀이에 맞춘 일관된 판단 방식을 계속해서 학습시킵니다.

글에 공감하거나 배경지식이 필요한, 감에 의한 풀이가 아닌 체계화된 풀이를 수록했습니다.

“선지를 접근하는 가장 빠른 판단과정으로”

3번 선지 판단과정

시시덕거렸다라는 선지의 사실이 선지의 주관인 우리의 냉소를 정당화시킨다.그러니 1번선지처럼 처리하고 가자.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겨 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단순히 풀이만 적어놓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각의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지만 읽고 풀고 넘기는 1번선지와 지문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2번선지를 구분하는

판단과정을 수록했습니다. 지문에 1대1대응이 아닌 근본원리에 따라 선지만 보고 풀고 넘겨야 하는

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록해냈습니다.

“기출분석을 통해 각 문제 유형에 대한 가장 빠른 풀이”

BEST

1345는 글의 주제성과 거리가 먼 주관을 써놨으니 글에 가서 확인해봐도 적절할 확률보다 적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 2번만 지문으로 가서 확인하고 2번을 잡아 두고 (가) 읽고 와서 2번을 먼저 보고 답을 확정해라.

단순히 1번부터 5번까지 일일이 지문으로 대응시키면서 순서대로 푸는게 아닌

문제의 근본 원리에 따라 정답일 가능성이 없는 선지는 넘기고

정답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지만 골라 낼 수 있도록 best한 실전적 풀이를 수록했습니다.

“문학은 감이 아니다”

EBS 정답해설 : (가)에서 ‘창’은 <보기>에서 언급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와 관련된다곤 볼 수 있으나, ‘창’ 자체가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EBS해설이 막막한 이유

EBS해설이나 “그읽그풀”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은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수험생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가? 나는 이 문장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저히 몇 번 다시 읽어봐도 안되는데 그럼 배경지식이 있어야하나 시를 미리 공부해야 하나, 이런 사고로 빠지게 된다. 그럼 더 최악으로 빠지게 되는거다.

학생들 입장에서 당연히 막막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수록했습니다.

글 단위 문장 위주의 감상적 태도로 접근하고 해설지를 봤을 때,

막막한 이유들을 수록해서 더욱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적어놓았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기준이다”

! From기출

청각의 시각화나 시각의 청각화 등등 기존 감각을 다르게 표현한 방식은 성립되는 조건이 두가지다. 문장 내에 서로 다른 감각이 있으며 하나의 감각이 다른감각을 비유하고 있으면 성립한다.

EX) 옛이야기 지줄대는(청각) 실개천(시각) =
시각의 청각화 (2018학년도 수능특강 정지용 향수)
밤바람 소리(청각) 말을 달리고(시각) =
청각의 시각화(2018학년도 수능특강 정지용 향수)

표현상의 특징은 단순히 표현을 암기해서 되는게 아니라 표현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이정도 표현이 기출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판단하더라~ 등과 같은 판단이 서야합니다.

이를 FROM기출을 통해 모두 수록했습니다.

“특수문제에 대한 풀이법과 난이도 조절방식”

문제분석

출제의도

고전시가의 본질적 특징 파악하기

난이도 조절방식

- 각 수마다의 관계를 물어보기(어려움)
- 초장 중장 종장을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물어보기(쉬움)

선지방식

- 각각의 장이나 수를 개별적으로 물어보기
- 각각의 장이나 수를 연결시켜 물어보기

대비책

단락읽고 바로 와서 풀기

특수문제에 대한 문제의 출제의도와 선지 구성 방식 그리고 난이도 조절방식과 대처법까지 모두 수록했습니다.

일관된 풀이를 통해 각 문제 유형에 대해 완벽한 기출분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순서”

💡 문제풀이 순서 분석

수필을 먼저 읽는다고 치면 풀 수 있는 문제는 24번 25번 26번 27번이다. 그 중 단락 문제가 있으니 단락 문제 전까지 다른 문제들을 쭉 풀고 단락을 읽고 나서 단락 문제를 풀고 나머지 지문을 다 읽고 넘어가는게 좋아보인다. 그리고 다음 지문을 25번에서 다와 함께 물어본 나 지문을 읽고 25번을 확정시키고 나머지 문제를 풀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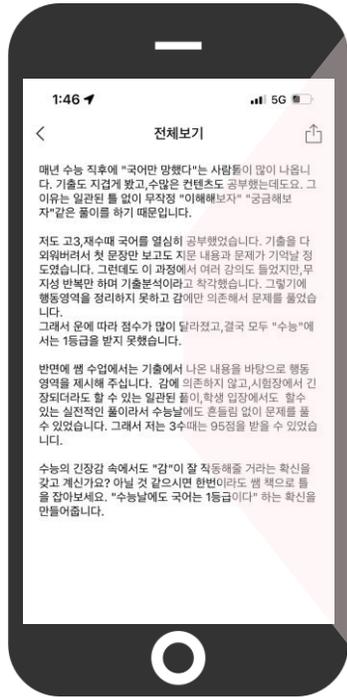
27번보기 > 다 A전까지 읽기 > 27번 4번 > 24번 1 2 3번 > 25번 1번 > A B > 26번 > 나머지 > 27번 5번 > 24번 4번 5번 > (나) > 25번 1번 > 27번 2번 > 23번 > 22번

실질적으로 가장 빠른 루트로 풀 수 있는 문제 풀이 순서를 체계화시켜서 제공합니다.

“수강생의 반응”



“제 수강생이 남겼던 수강평입니다.
교재보실 때 공부 목표를 잡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매년 수능 직후에 "국어만 망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
다. 기출도 지겹게 봤고,수많은 컨텐츠도 공부했는데도요. 그
이유는 일관된 틀 없이 무작정 "이해해보자" "궁금해보
자"같은 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3,재수때 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기출을 다
외워버려서 첫 문장만 보고도 지문 내용과 문제가 기억날 정
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정에서 여러 강의도 들었지만,무
지성 반복만 하며 기출분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행동영역을 정리하지 못하고 감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풀었습
니다.

그래서 운에 따라 점수가 많이 달라졌고,결국 모두 "수능"에
서는 1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쌤 수업에서는 기출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행동
영역을 제시해 주십니다. 감에 의존하지 않고,시험장에서 긴
장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일관된 풀이,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실전적인 풀이라서 수능날에도 흔들림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수때는 95점을 받을 수 있었습
니다.

수능의 긴장감 속에서도 "감"이 잘 작동해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아닐 것 같으시면 한번이라도 쌤 책으로 틀
을 잡아보세요. "수능날에도 국어는 1등급이다" 하는 확신을
만들어줍니다.